대제사장 예수님 덕에 돈 벌듯 하나님 벌기

(히5:1~14)

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3.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예수님 덕에 돈 벌 듯 하나님 벌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까지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돈 벌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벌면서 삽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큼직한 돌을 하나 골라서 잘 씻고 깨끗하게 해서 시장판에 벌여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단, 절대로 진짜 팔지는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누가 그걸 살 것이라고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돌멩이를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멀쩡한 젊은 사람이 시장판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잡고 보따리를 펼쳐서 돌을 하나 떡 놓습니다, 당연히 팔러 나온 줄 알겠지요.
하루 종일 시장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찹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 젊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저 큰 선심 쓰시는 마음으로 돌멩이를 사서 이 젊은이로 하여금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야겠다, 하고 다가갔습니다.
젊은이한테 '내가 5000원 줄게, 돈 받고 그만 집으로 가게!' 아,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싫습니다, 안 팝니다'
'그래? 그럼 관두든지' 그러다 다시 돌아섭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10000원 줌세!'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싫습니다, 안 판다니까요?'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장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궁금증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저 돌멩이가 대체 뭔데 안 판다는 것인가' 다들 궁금해서 호기심에 다른 사람이 가격을 제시합니다.
'어이, 이봐, 내가 만 오천 원 내겠네!' 다들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요.
'안 팝니다' '그래? 그러면 삼만 원' 여기저기서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분명히 저 돌멩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갖다놓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준다든지 무슨 수가 있기는 있는 것이다, 저 청년이 돈이 급해서 갖고 나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 '안 팝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50만 원에도 안 판다니까 분명히 저 돌멩이는 사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비한 무슨 비밀이 숨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5천 원을 제시했던 할아버지가 '100만 원!'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의 심정은 처음의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내가 늙었는데 정말 세상 살아봐야 별 볼일 없지 않았는가, 근데 저 돌멩이 분명히 뭐가 있어, 저거 사다가 내가 한 번 여생에 한 번 신기한 꼴을 보리라는 결심을 하고 100만 원을 불렀는데, '안 팝니다' 하고는 보따리를 싸갖고 스승에게 돌아왔습니다.

스승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깨달은바가 있느냐?' '예!'
'맞다' 뭐가 맞다는 겁니까?
이 세상, 인간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 그것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얻겠다고 일평생을 전력질주 하는 그런 가치들, 그게 다 본래 실제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가치로 추앙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인간세상 안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오고가면서 만들어놓은 가치들입니다.
실지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얘깁니다.

그게 인간세상에서의 높은 관직, 일류대학, 돈, 명품 아파트, 명품 백, 명품 자동차 등, 이게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도바울 말을 빌려볼까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마음의 안방에 갖다가 모셔놓고 내 손에 현실적으로 쥐겠다고 평생 뛰어갈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처럼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주제에.
이게 세상의 가치의 정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마음은 채워야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나버리니까, 마음에 채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속이는 겁니다, '괜히 마음에 채울 것 없어 허무하다고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에덴 없이도 너희 마음속에 채울만한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인간들끼리 찾다가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짜 돌멩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좋을까요?
그걸 마음속에 집어넣고 3캐럿짜리 다이아 받으면 남편이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몇 부이런 작은 것을 받으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런 걸까요?
그거 돌멩이 아닙니까? 그 돌멩이가 누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까?
인간세상이 정한 것이고 인간세상의 인간들이 정할 때 그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진짜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의미도 없고 실제로 내용이 공허한 것들인데도 좋다고 인정하게끔 내 마음이 작용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원래 속이 꽉 찬 진짜 좋은 대상은 하나님 한분밖에 안 계세요.
영원 전부터 속이 꽉 차서 진짜 좋으신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이 만들어놓으신 피조의 세상 속에서 어느 것 하나를 받아들여서 좋다고 여기도록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좋으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하나님과 아버지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유일하게 좋으신 그분을 서로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만남에 우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건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들여놓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멩이처럼 인간사회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정해놓은 실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가치들이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나님 벌기를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 좋다 나쁘다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봐요, 백합화를 하나 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야~ 이곳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네? 정말 예쁘다!' 이 '예쁘다'가 뭡니까?
벌써 백합화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합화가 예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법니까?
그 백합화를 보는 순간에 예쁘다고 하는 판단과 함께 백합화가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백합화를 보면서 예쁘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합화는 허공에 떠있는 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사물을 보면, 적어도 창조주가 누구신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은 대상들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돼요.
일단 '돈' 하면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판단이 딱 서잖아요.
그 판단이 서지 않으면 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돈이 안 벌린다, 이 상황을 나쁘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마음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악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돈이 안 벌리는 상황도 판단을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돈이 안 벌리는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와 닿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만나게 되고 5감관으로 접하게 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매사에 내 마음이

죽어버릴 때, 이상하게도 그 모든 내 마음이 죽은 대상들,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죽었어요,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죽었어요, 그렇게 듣고 보고 있는데 마음이 죽어버린, 판단하지 않고 마음 안으로 들여놓지 않는, 그건 좋은 것 예쁜 것만 아니라, 싫은 것 미운 것,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여놓는 건 마찬가지에요, 마음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예쁜 것이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는 것을 느끼면서, 그 예쁜 것 좋은 것 싫은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듯이 오전에도 벌고 싶고 오후에도 벌고 싶고 밤에도 벌고 싶고, 가능하다면 새벽에도 벌고 싶어서,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판단하지 않고 죽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이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기만 하면, 그 모든 대상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닿아있는 것이니까.

강릉 해변에 오셔서 바다를 한번 보세요.
서해안의 바다와는 달라요.
얼마나 바다가 푸르고 멋진지 몰라요.
그럴 때, '아! 참 바다가 푸르고 멋지다' 해버리면 바다가 마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딱 죽어버립니다, '아 멋지다'에서 다까지 하지 말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바다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시고,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버지를 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푸르고 광활하고 멋지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을 버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 말썽 부리는 자식을 판단하기 전에 판단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신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저 아이의 생김새를 저렇게 만드셨고, 성격을 저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선민이 누굽니까?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며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돌멩이의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틈바구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벌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이 선민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이 붙을 곳을 봐야 투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을 벌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 이야기가 선민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선민의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원죄의 힘에 눌려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풍요와 다산, 그것이 좋아 바알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꾸중하니까 돌아와서 성전에 오면,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공허한 가치들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쫓았던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간음했던 모든 생활들을 다 회개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의 인도 하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습관적으로라도 문화적으로라도 그렇게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나니까 대제사장이 없어져버리고, 성전 생활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정말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사장 중에서도 큰 제사장이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단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왜 대제사장인지 한번 살펴볼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하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하려니까 백성과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 되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옛날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벌게 해주었던 것처

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벌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적하시고 선민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데,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능력과 신분과 지위와 성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주님께서는 누구시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대제사장이 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요즘 대박이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어디까지 끌고 가시나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벌기에 대박이 나는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는 하나님을 벌어들이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백합화를 볼 때, 바다를 볼 때, 돈이 안 벌리는 사업 상태를 볼 때, 가정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그 대상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와 속죄제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가게 될 때,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으면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 듯이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돈 벌 듯이.
그러므로 이 건희 씨를 부러워하고 그 아들 이 재용 씨를 부러워하거나, LG, SK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재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재벌이 되는 것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희생제로 속죄제로 드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 되심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대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십자가를 딱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천 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죽은 거니까.
마음이 죽어버리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싫다, 괴롭다, 판단이 중지 됩니다.
판단이 중지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느끼시면 내가 판단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죽어버린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꽉~ 차 들어오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 사방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맡기고, 어디다 내려놓고, 어디로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살렘이 뭡니까? 샬롬, 지금 히브리서에서 샬롬이 안식입니다,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마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버는 겁니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만 있게 되면 마음이 버리고 떠난 육체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으신다, 육체로 인한 내 삶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아담이 처음 의식이 깨고 하나님을 만난 날이 안식일이었을 때, 이미 아담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에덴동산으로 다 준비해놓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죽어서 하나님을 버는 데에 전력하면, 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야 될 삶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으로 다 준비해놓으신다는 겁니다.

단, 에덴동산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마귀가 사주해서 이 세상에서 세뇌된 그 가치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는 게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하는 그런 모양으로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계속 죽고 있으면, 내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갑니다.
가룟유다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원수가 등장할 수도 있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에덴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나머지여생 동안에 한번 하나님 재벌들이 될 마음들 없습니까?
하나님 재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그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더 빨리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든 대상에서 내 마음이 판단을 하면서 끌어들이게 될 상황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에 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벌어들여서 '아, 하나님이 입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일이 잘되든 못 되든.
일이 잘돼도 잘됨에 대해서 죽고, 못돼도 못됨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벌어들이면서 하나님 재벌이 되어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 뜻으로만 꽉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독생자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깨끗함, 죄 없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 몸을 제사로 드리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그 동안 돈 벌겠다고 애썼던 것처럼 십자가 생활화해서 하나님 벌겠다고 애쓰면서 살면,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꽉꽉 채우며 열매 맺어질 것이고, 내 마음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 샬롬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생활화로 하나님 버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 재벌 되면서, 이 세상 가치들을 향하여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